

[로스쿨 합격기]

내 행복한 운명, 로스쿨 -7전 8기 도전기-

이 덕 춘

- 1975년 12월 생
- 전북사대부속고등학교 졸업(94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2002년)
- (前)한국외환은행 근무
- (前)전북일보 경제부, 문화부 근무
-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기



I. 인사드리며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합격기. 낯설기만 한 이런 글을 쓰는 날이 오다니, 참 새롭고 기쁘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고대했던 법전원 입학인가. 2008년 8월, 처음으로 실시된 법학적성시험을 보고 법학전문대학원에 들어오는 데 꼬박 3년이 걸렸다. 말하자면 삼수를 하고서야 법전원에 입학 할 수 있었다. 그 시간이, 그 고통이, 합격의 기쁨과 함께 새삼 떠오른다. 이 글을 쓰면서 나는 독자들이 이런 나의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통만 있고 기쁨이 없다면 얼마나 허탈할까. 또한 시험에서 고통이 없는 기쁨을 상상하는 것도 쉽지 않다.

2011년 5월 26일 오후 3시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고시계의 청탁을 받고 합격기를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지난 3년간의 법전원 입시를 되돌아본다.

법전원 생활의 기쁨을 잠시 잊고 이제 법전원 입시를 한번 돌아보자. 6전 5패 1승의 이야기(매년 가군 나군 입시를 치렀기 때문이다)는 ON AIR.

II.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다!(지원동기)

원광대 법전원 입학 전 한국의환은행과 전북일보를 다녔다. 직장인이 다 그렇듯이 직장 생활에서 답답함을 지울 수 없었다. 은행원 생활보다는 기자 생활이 적성에 맞았지만, 힘든 건 마찬가지였다. 특히 기자 생활은 시간 부족으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기도 했다.

자유롭게 일하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는 직업. 직장인들의 이런 로망을 실현할 기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법전원 입시가 시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법조인이란 이런 바람을 실현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2008년 2월 서울에서 있었던 법학적성예비시험에 응시했다. 3년이란 고통의 전주곡이었고, 새 인생의 시작이었다.

주변의 의견을 모았다. 알고 지내는 선후배 법조인들이 적극적으로 법전원 입시를 추천했다. 사랑하는 아내 강선영(전주한들초등학교 교사)도 법전원 입시를 적극 지원해줬다. 곧 전북일보를 퇴사하고 법전원 입시에 전력했다. 그때까지는 법전원 합격까지 3년이란 세월이 걸릴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혹 3년이 걸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있어서 말렸다고 해도 법전원 입시를 포기하지 않았을 것 같다.

III. 법학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성실성과 계획성은 수험생들의 금과옥조(金科玉條)다. 성실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자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다. 계획성이 없다면 도중에 길을 잃기 쉽다. 가끔 성실성과 계획성 없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합격을 꿈꾸는 수험생이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한다.

철저한 정보 수집도 빼놓을 수 없는 무기다. 목적지를 결정했다면 지도, 교통수단, 잠자리, 식량 등 온갖 준비물들을 마련해야 한다. 철저한 정보 수집 없이 완벽한 여행은 불가능하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3년이란 세월이 ‘철저한 정보 수집’ 없이 막연한 희망이나 자신감 때문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아래는 세부적 수험 전략들이다. 법전원 입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

적성시험(LEET)시험을 기준으로 그 전후로 나눠 살펴보겠다. 법전원 입시는 크게 정량적 부분과 정성적 부분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1. 법학적성시험 전(정량적 부분에 집중)

(1) 언어이해

법학적성시험 1교시 과목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1교시 시험을 잘 넘겨야 법학적성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누구나 동의하듯 대한민국 ‘국어’처럼 어려운 것이 없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는 말은 괜한 투정이 아니다. 이런 난관을 넘기기 위한 방법으로 신문을 읽었다. 신문 기사는 논리적이고, 시대 흐름에 맞는 글쓰기다. 특히 분석기사, 칼럼 등은 법학적성시험에 지문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 많았다.

매일 아침 한겨레신문을 정독했다. 1면부터 마지막 면까지 모든 기사를 빼놓지 않고 읽었다. 약 2~3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다. 과학 섹션이 나오는 날은 더욱 집중했다. 사회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공계 관련 지문들에 쉽게 적응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교양도서 읽기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히 시험을 2주 앞두고 읽었던 「김대중자서전」이 기억에 남는다.

여기에 신문을 읽으면서 속독 연습, 비판적 읽기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 주기적으로 사설학원 모의고사에도 참여했다. 개인적으로 언어이해 문제를 풀 때는 시간을 꼭 지켜서 풀었으며, 어휘나 문법 연습은 신문 기사에서 모르는 것을 찾아보는 식으로 해결했다.

(2) 추리논증

첫 해 시험에서는 수리추리가 많이 출제돼 어려움을 겪었다. 2회부터는 논리추리를 갈수록 중요시하는 추세다. 기본적인 논증 구조를 알고 접근해야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적인 논리학 교과서를 읽으면서 추리논증을 준비했다. 대학에서 논리학 교재로 사용되는 책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어려워 논리학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쓴 책들을 봤다. 반복적으로 2~3회독 하면서 논리추리에 대해 감을 익혔다. 특히 애매한 부분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감을 잡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익혔다.

추리논증 지문을 읽으면서도 속독연습은 계속했다. 정독과 속독을 반복하면서 지문을 정확하고 빠르게 이해하려 했다. PSAT 문제에서 추리 부분을 풀어보면서

논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물론 MEET, DEET 기출문제도 추리논증에 도움이 됐다.

(3) 논술

법학적성시험을 준비하면서 제일 막연한 부분이 바로 논술이다. 실제로 원서를 내는 각 학교에서 채점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기가 수험생들 사이에서 상대적 좌표가 어디인지도 모르는 분야다. 2008년 2월 예비시험에서는 일괄적으로 출제위원회에서 채점을 했지만, 정식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개인적으로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언어이해, 추리논증과 마찬가지로 논술도 각 대학이 아닌 출제환 곳에서 채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술은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논거를 제시해 자신의 논리 구조를 탄탄히 하면서 상대 주장의 허점을 찾아 반박하는 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나열식 논리 전개는 좋지 않고, 쇠사슬이 고리로 연결되듯이 논술도 그렇게 연결돼야 한다. 또 중요한 것은 논술을 끝까지 마무리하는 습관이다. 혼자 어렵다면 스터디를 만들어 함께 끝까지 써보는 연습을 해보자. 모범 답안이 없다면 위에서 말한 신문의 칼럼도 좋은 범례가 될 것이다. 괜히 신문에 칼럼이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게다. 내용도 논리도 시대를 이끄는 칼럼들이 많다.

(4) 공인영어성적

영어는 대부분 잘하는 것 같다. 특히 젊은 층으로 갈수록 영어 실력이 뛰어나다. 문제는 비교적 오랫동안 영어에 손을 놓았던 수험생들이다. 또 사법시험이나 행정고시에서 법전원으로 방향을 바꾼 수험생들이 영어에 약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어학 공부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반복이 왕도라는 주장이 그나마 설득력이 있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공인영어성적을 요구하는 시험이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높은 성적을 얻는 것은 쉽지 않았다.

영어 시험에 대해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익시험을 준비할 때엔 강사들의 충고를 철저히 따랐다. 빈출되는 부분은 암기를 했다. 듣기 부분은 반복적으로 들으며 공포를 없앴고, 읽기는 시간 조절을 위해 노력했다. 각종 시험용 기술을 활용했고, 시험 전에는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풀었다.

(5) 제2외국어 및 기타 자격증

학교에 따라서 제2외국어 성적이 있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주는 곳이 있다. 입

학하고자 하는 법전원 입시전형을 참고해서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순수하게 법전원 입시를 위해 제2외국어를 준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나 대학 시절 제2외국어를 경험할 기회가 있었던 수험생들이나 활용할 수 있을 듯하다.

자격증은 나름대로 법전원 입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특히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직 자격증은 자기 소개서나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정량적인 평가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비교적 합격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6) 봉사활동

첫해 시험에서는 봉사활동이 상당히 중요한 듯 알려졌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수험가의 중론이다. 갈수록 중요도도 떨어지는 것도 사실. 예외적으로 봉사활동 분야에서 상징성을 가진 수험생들은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꼭 입시를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봉사활동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사회와 나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때문이다. 또 수험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 앞으로 법조인이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등을 고민하게도 만든다.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질적으로 다른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전원 입시에서 봉사활동의 비중이 좀 더 커졌으면 하는 바람도 갖고 있다.

(7) 법학적성시험 하루 전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시험 당일 컨디션은 정말 중요하다. 따라서 시험 당일 컨디션 조절을 위해 그 전날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깊은 잠을 자기 위해 적절한 운동도 좋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게 위해 가벼운 독서도 좋은 것 같다. 또 정리하는 마음으로 수험 생활을 반추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2008년 8월 16일(이 해 시험은 8월 23일이었다)에 첫째 딸 송하가 태어나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예쁜 딸 송하가 수험생활을 연장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

2. 법학적성시험 후

사실상 법전원 입학을 위한 정량적 준비는 끝난 것과 마찬가지. 이제 정량적인 것은 바꿀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4학년 재학 중이라면 법전원 입시에 적용되는 학점도 바꿀 수 없다. 9월에 있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학교도 거의 없

다. 그렇다면 이제는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해야 할 때다. 정량적인 부분에 소홀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정성을 다하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어차피 이때는 누가 얼마나 앞서가는지도 알 수 없다. 대학 입시처럼 비교적 전국 단위 수험생이 참가하는 모의고사도 없기 때문이다. 물론 법전원 입시에 자료들이 쌓여 가면 이 부분도 많이 달라지겠지만 말이다.

이때는 맘속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를 몇 개 정도로 정하고, 정보 수집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해당 학교가 뭘 원하는지, 어떤 콘셉트로 면접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준비할 것이 상당히 많다. 수험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카페의 해당 학교 카테고리에서 질문을 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선배들도 많다. 아마도 다음 카페 「서로연」이 대세인 듯싶다.

(1) 자기소개서

딥 임팩트(deep impact). 면접을 보기 전 면접관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평면적인 자소서 버려라. 입체적이면서 역동적인 자소서를 만들어라. 그러면서 주의할 점이 있다. 바로 수위 조절이다.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한계선을 넘어서선 안 된다. 한계선은 수험생 본인이 자소서를 계속 써보면서 찾아내야 한다.

여기서 각 학교 특성화를 고려한 내용도 덧붙이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사실상 법전원에 입학하고 나면 특성화가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게 되겠지만, 입시를 위한 자소서에서는 특성화 언급이 필요하다. 짜고 치는 얘기 같지만, 동방예의지국(?)에선 최소한의 예의도 필요하다.

합정을 파라! 면접관이 질문할 수밖에 없는 합정을 파야 한다. 자소서를 보고 면접관이 궁금해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이 합정에 면접관이 걸려든다면 최종 합격까지 7부 능선은 넘었다.

(2) 학업계획서

어려운 부분이다. 아직 법전원 1기들도 3학년 2학기 학사 일정을 경험하지 못했으니 수험생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수험생은 합격을 위해 다른 경쟁자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공략하라! 학사 일정도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고 모른다면 Q&A 부분에 문의하는 것도 좋다. 직접 전화를 걸어 교학과 직원을 귀찮게 하는 것도 좋은 전략. 이렇게 해서 그 학교에 맞는 학업계획서를 만들어라. 학업계획서가 입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노력한 흔적을 보인다면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인지상정이란 말

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3) 면접

법전원 입시의 꽃. 법전원 입시의 꽃 중의 꽃은 바로 면접이다. 지금까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면접을 통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면접은 훌륭한 선수를 한방에 혹 보낼 수도 있다. 물론 부족한 수험생에게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면접이다. 지금까지 모두 8차례의 면접 경험(3회 입시 경험에서 총 6번, 2008년 5월 고대 모의면접, 2010년 2월 추가면접 등)에 의하면 그렇다. 법전원 입시 결과가 여기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소서에서 함정을 파는 것과 더불어 여기서는 함정에 빠질 면접관의 얼굴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 모교가 아니라면 교수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홈페이지에서 얼굴을 익혀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함정에 빠질 교수들의 상세한 정보를 알고 면접장에 들어간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어느 면접에서나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법전원 입시에서도 필요하다.

(4) 스터디

법학적성시험을 대비한 스터디 구성은 이제 필수적인 것으로 자리 잡았다.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면접 등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좋은 스터디 구성원들을 만나야 한다. 교학상장(敎學相長)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스터디원끼리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을 돌려보면서 첨삭 지도해줘라. 자기 글은 자기가 잘 모른다. 이 합격기도 첨삭 지도를 받고 쓰고 있음을 유념하길 바란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자소서나 계획서를 보여주고 충고를 듣자.

면접 준비도 스터디원들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면접관과 수험생으로 나눠 철저하게 실전처럼 연습해야 한다. 질문도 피면접자에게 미리 알려주면 안 되고, 장소도 면접장처럼 꾸며야 한다. 스터디 카페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시간도 정확하게 맞춰서 연습해야 한다. 노파심에서 계속 중언부언하지만, 스터디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하고 싶다. ‘스터디 없이 합격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런 원칙을 함께 지켜가면서 합격의 기쁨을 나눈 홍정훈, 노혜성, 박명진, 최충만에게 이 글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또 법전원에 합격했는데도 증권업계에서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박경아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IV. 마무리

눈치가 빠른 수험생들은 이제 ‘특별한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맞다. 이 합격기에는 특별한 비법이 없다. 다만 이 합격기를 실천의 문제와 연결해서 읽어주는 독자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새롭고 신선하게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법전원 입시를 도입한 것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계량적이고 획일화된 법조인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국민적 결단이 만들어 낸 결과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법조인의 숫자를 늘려 법조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제부터는 법조인의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진 시대다. 마치 조선시대에 과거를 통해 인재를 등용하던 시스템이 근대화와 맞물려 갑오개혁을 통해 근대교육을 받은 관리 임용 방안으로 방향을 튼 것과 같은 이치다. 유학만을 공부한 유생들에게는 괴로운 일이지만, 시대의 흐름은 어쩔 수 없었다. 1984년 서울시 만원동 수재(水災)를 변호하기 위해 수리수문학과 토목공학을 공부하며 변호했다는 고 조영래 변호사의 역할을 이 시대 법전원 출신 법조인들에게 기대하면 과욕일까. 이런 흐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개인적으로 매우 기쁘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법전원에 합격할 때까지 옆에서 믿고 지켜봐주신 아버지와 어머니,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감사드린다. 또 원광대학교 법전원 교수님들과 1기, 2기 선배님, 3기 동기들에게 함께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함께 손잡고 걸어가자고 부탁하고 싶다. 끝으로 아내 강선영과 딸 송하, 송연이에게 멋진 남편과 아빠가 될 것을 다짐한다.